

임산부의 구강보건관리 행동실태에 관한 연구

박정순¹ · 이지연¹ · 김선주² · 이경희³ · 주온주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¹강릉영동대학 치위생과, ²벽성대학 치위생과, ³신홍대학 치위생과

색인: 임산부, 구강보건관리행동실태, 구강보건교육

1. 서론

임신은 여성의 정신적, 성적 발달상 가장 중요한 일인 동시에 일생을 살며 경험하는 여러 단계 중의 하나로써 자기 주체성의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한 과정이며, 임신중에 임산부가 느끼는 정서적 변동은 태아건강에 대한 불안, 신체변화에 따른 불안감, 출산시 신체적 고통과 열상에 대한 공포감 등으로 감정이 과민하여지기 쉽고 정신상태의 평형이 파괴되기 쉽다¹⁾. 또한, 임산부는 치은출혈로 인하여 잇솔질을 기피하게 되어 치은염을 악화시키고 치아우식증도 증가될 수 있다. 그리고 임산부의 구강은 잦은 간식 섭취와 우식성식품 선호로 인하여 치아우식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에는 내분비계의 많은 변화를 일으키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임산부에 대해 구강건강관리방법을 충분히 교육시

켜야 하며 임신기간 동안 수 주 또는 매월 계속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²⁾. 그러므로 임신 전 및 임신 초기에 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상담 및 교육이 중요하다.

임산부의 주된 교육내용으로 치면세균막관리, 당분섭취 제한, 가벼운 치면세마 및 불소의 이용 등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임신기간 동안의 구강위생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양태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³⁾.

현대에는 치과의사만으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⁴⁾. 따라서 임산부에 대한 일상적인 치과치료는 대개 안전하지만 방사선 촬영, 투약 및 치료행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임산부와 태아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구강보건인력은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

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는 구강상태에 따른 환자의 감정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반응을 알아야 하며 환자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치아건강과 일정한 행동을 실행하도록 독려하고 전문적 치료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⁵⁾.

임산부의 구강건강상태는 장차 아동의 구강보건관리의 시초라고 사료되며 김 등⁶⁻⁹⁾은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구강건강관리 행위가 자녀의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 등^{10,11)}은 아동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며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자구강보건관리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임산부의 구강건강관리 행동실태 및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구강진료실에서의 임산부를 위한 구강보건교육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산부인과에 내원한 임산부 2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미흡하여 결과분석이 곤란한 65명을 제외한 150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및 내용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방법은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협조를 요청한 후 임산부가 자기 기입식에 의해 설문지를

표 1. 일반적 특성

	구 분	N	%
연령	20대	79	52.7
	30대	66	44.0
	40대 이상	5	3.3
자녀수	임신중	31	20.7
	1명	92	61.3
	2명	25	16.7
	3명	2	1.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	1.3
	고등학교 졸업	49	32.7
	대학교 졸업	82	54.7
	대학원 이상	17	11.3
	학생	4	2.7
	회사원	12	8.0
직업	주부	66	44.0
	자영업	4	2.7
	서비스업	14	9.3
	공무원	15	10.0
	전문직	26	17.3
	기타	9	6.0
	합 계	150	100.0

작성하게 한 뒤에 수거된 설문지는 산부인과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 구강보건관리 행동실태에 관한 내용 10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행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행동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X^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 임신기간 중 치과의료기관 이용 실태

항 목		N	%
최근 3개월 동안 치과의료기관 이용 경험	그렇다	65	43.3
	그렇지 않다	85	56.7
	합 계	150	100.0
치과의료기관 방문 목적	정기구강검진	9	13.8
	치주병 치료	22	33.8
	치아우식증 치료	26	40.0
	정기적 치석제거	6	9.2
	보철물 치료	2	3.1
합 계		65	100.0

3. 연구성적

도 2.7%로 나타났다.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연령, 자녀수, 학력, 직업을 조사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44.0%, 40대 이상이 3.3%로 나타났고, 자녀수는 1명이 61.3%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중이라는 응답도 20.7%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54.7%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32.7%로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가 1.3%로 가장 적었다. 또한 직업별로는 주부가 44.0%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17.3%, 공무원이 10.0%였으며, 학생이라는 응답

3.2. 구강보건관리 행동실태

3.2.1. 임신기간 중 치과의료기관 이용 실태

임신기간 중 치과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이 43.3%가 최근 3개월 동안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56.7%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동안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임산부 중 치과의료기관 방문 목적을 조사한 결과는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주병 치료를 위해서가 33.8%, 정기구강검진을 위해서

표 3. 임신기간중 문항별 구강보건관리 행동실태

항 목		N	%
진료실 구성원에게 임신 사실 알림	그렇다	127	84.7
	그렇지 않다	23	15.3
구강관리방법 문의경험	그렇다	85	56.7
	그렇지 않다	65	43.3
구강관리방법 교육경험	그렇다	36	24.0
	그렇지 않다	114	76.0
정기구강검진 실시	그렇다	18	12.0
	그렇지 않다	132	88.0
합 계		150	100.0

표 4. 임신 후 구강관리 변화

항 목	N	%
구강관리 방법		
그렇다	83	55.3
그렇지 않다	67	44.7
합 계	150	100.0
구강관리 내용		
잇솔질 횟수 증가	33	39.8
자극적인 음식섭취 자제	7	8.4
구강변화에 민감	43	51.8
합 계	83	100.0
치약 선택		
잇몸에 도움이 되는 치약	47	31.3
불소가 포함된 치약	16	10.7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선택	87	58.0
합 계	150	100.0

가 13.8%, 정기적 치석제거를 위해서가 9.2%로 나타났으며, 보철물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가 3.1%로 가장 낮았다.

3.2.2. 임신기간 중 문항별 구강보건관리 행동실태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문항별 행동실태에 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임신기간 중 치과치료시 진료실 구성원에게 84.7%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은 15.3%로 낮게 나타났다. 치과의료기관 방문시 구강관리방법에 대하여 56.7%가 문의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문의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43.3%로 높게 나타났다. 임산부의 구강관리방법에 대하여 24.0%만이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76.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신중 정기구강검진을 12.0%만이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8.0%는 정기구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임신 후 구강관리 변화

임신 후 구강관리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구강관리 방법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55.3%로 방법에 변화가 없었다는 44.7% 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구강관리 방법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자 83명 중 구강관리 변화 내용으로 임신 전보다 임신 후에 구강변화에 민감해졌다는 응답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잇솔질 횟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39.8%로 나타났다. 또한,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를 자제한다는 응답은 8.4%로 가장 낮았다. 임신 후 치약선택의 변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선택한다는 응답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선택한다는 응답은 10.7%로 낮게 나타났다.

3.2.4. 임산부 구강관리방법에 대한 정보습득

임산부의 구강건강관리방법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로서 <표 5>와 같이 매스컴 및 인터넷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의사나 보조인력을 통해서라는 응답은 10.0%, 친지나 가족 및 친구를 통해서라는 응답은 8.0%로 나타났다.

표 5. 임신부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정보 습득

항 목	N	%
매스컴 및 인터넷	76	50.7
치과의사나 보조인력	15	10.0
친지나 가족 및 친구	12	8.0
기타	47	31.3
합 계	150	10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방법

3.3.1. 임신부의 구강관리방법 교육경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신부의 구강관리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임산부의 구강관리방법 교육의 경험에 대해 24.0%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6.0%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임신부의 구강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의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구강관리방법 교육경험을 살펴본 결과, 40대 이상에서 40.0%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30대의 78.8%는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명의 자녀가 있는 임신부의 경우 79.3%가 구강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임신중인 경우 32.3%만이 구강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았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에 따른 구강관리방법 교육경험을 살펴본 결과, 대학원 이상 임신부의 47.1%가 구강관리방법에 대해 교육을 경험했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중학교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신부의 구강관리방법 교육경험

N(%)

항 목	구강관리방법 교육 경험		합 계	p
	그렇다	그렇지않다		
연령	20대	20(25.3)	59(74.7)	0.590
	30대	14(21.2)	52(78.8)	
	40대 이상	2(40.0)	3(60.0)	
자녀수	임신중	10(32.3)	21(67.7)	0.599
	1명	19(20.7)	73(79.3)	
	2명	7(28.0)	18(72.0)	
	3명	-	2(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	2(100.0)	0.029*
	고등학교 졸업	9(18.4)	40(81.6)	
	대학교 졸업	19(23.2)	63(76.8)	
	대학원 이상	8(47.1)	9(52.9)	
	학생	2(40.0)	3(60.0)	
	회사원	3(25.0)	9(75.0)	
직업	주부	14(21.2)	52(78.8)	0.622
	자영업	1(25.0)	3(75.0)	
	서비스업	3(21.4)	11(78.6)	
	공무원	2(13.3)	13(86.7)	
	전문직	9(34.6)	17(65.4)	
	기타	2(25.0)	6(75.0)	
	합 계	36(24.0)	114(76.0)	

* : $p < 0.05$

졸업 이하 임신부는 100.0%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leq 0.05$). 직업에 따른 구강관리방법 교육경험에서는 학생이 4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이 34.6%로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에서는 13.3%만이 구강관리방법에 관한 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신 후 구강관리방법 변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신부의 임신 후 구강관리방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7>

과 같다. 임신부의 임신 후의 구강관리방법 변화에 대해 55.3%는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44.7%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여 구강관리방법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구강관리방법 변화를 살펴본 결과, 40대 이상과 20대에서 60.0%가 변화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가 2명인 임신부의 68.0%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임신 중인 경우도 58.1%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구강관리방법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학원 이상 임신부의 88.2%가 구강관리방법에 변화가 있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대학교 졸업에서는 56.1%,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44.9%가 임신 후 구강관리방법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신 후 구강관리방법 변화

N(%)

항 목	구강관리방법 교육 경험		합 계	p
	그렇다	그렇지않다		
연령	20대	48(60.0)	32(40.0)	0.416
	30대	32(49.2)	33(50.8)	
	40대 이상	3(60.0)	2(40.0)	
자녀수	임신중	18(58.1)	13(41.9)	0.165
	1명	48(52.2)	44(47.8)	
	2명	17(68.0)	8(32.0)	
	3명	-	2(100.0)	
학 력	중학교 졸업 이하	-	2(100.0)	0.001**
	고등학교 졸업	22(44.9)	27(55.1)	
	대학교 졸업	46(56.1)	36(43.9)	
	대학원 이상	15(88.2)	2(11.8)	
	학생	3(60.0)	2(40.0)	
직업	회사원	6(50.0)	6(50.0)	0.005**
	주부	26(39.4)	40(60.6)	
	자영업	3(75.0)	1(25.0)	
	서비스업	9(64.3)	5(35.7)	
	공무원	10(66.7)	5(33.3)	
	전문직	20(76.9)	6(23.1)	
	기타	6(75.0)	2(25.0)	
	합 계	83(55.3)	67(44.7)	

** : $p \leq 0.01$

반면에 중학교 졸업 이하 임신부는 100.0%가 구강관리방법에 대한 변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구강관리방법의 변화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직업에 따른 구강관리방법 변화에서는 전문직이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영업 75.0%, 공무원 66.7%, 서비스업 64.3%, 학생 60.0%, 회사원 50.0%, 주부 39.4%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4. 고 인

인간 행복의 요건에는 의식주와 함께 건강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은 식생활과 관계가 밀접한 구강보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 양식의 변화로 만성병의 유병률이 증가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이나 치주병에 대한 일반인 및 임신부의 관심도 높아졌다¹²⁾.

임산부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며, 특히 구강위생관리에 소홀하므로 인하여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발생이 높아진다. 보통 2~3개월에 잇몸 염증이 생겨 임신 8개월까지 심해지다가 점차 감소하는 임신성 치은염은 원래 염증이 있던 잇몸부위가 더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다¹³⁾. 임신 초기의 오심과 구토가 발생할 때에는 잇솔질과 양치를 하도록 하고 구역질시에는 작은 칫솔을 사용한 잇솔질을 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치과치료시 진료기구나 X-ray 필름을 구강 안에 놓을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임신부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치면세균막관리, 식이조절, 불소 이용의 교육이 요구된다³⁾. 산모 및 태아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구

강위생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인력의 관심과 임신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 이에 임신중 임신부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행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개월 동안 치과의료기관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43.3%가 치과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40.0%는 치아우식증 치료, 33.8%는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기간 중 치과 이용율이 낮은 이유에는 임신중 치과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¹⁴⁾의 연구에서 치과내원 이유는 통증이 48.6%를 차지하여 조기치료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가장 시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치과질환은 치아우식증이었고 그 다음이 치주질환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윤 등¹⁵⁾의 연구에서는 치주질환이 조산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치주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을 실시해야 하며,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서는 불소 세치제의 사용 및 식이조절 등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구강진료기관에 자주 내원하는 경우 구강보건교육과 진료에 대한 관심으로 구강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고 구강보건지식이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구강병의 예방과 조기치료로 이어지고 구강보건수준도 향상 될 것이다.

임신 중에 복용하는 약은 대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진통제에는 아스피린과 카페인, 페나세틴이 함유되어 있고, 일부 기침약이나 수면제에는 알코올이 무려 25%나 포함되어 있으며 테트라 사이클린계의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난청, 빈혈, 누런 이(황치), 뼈의 이상,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한다¹⁶⁾.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신체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치료를 하지 않지만 4~6개월 사이에는 치료가 가능하다. 치과치료 전에는 구강보건인력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태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물을 복용해야 하고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전신마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X선 촬영을 해야 할 경우에는 X선 촬영을 하기 전 납 가리개를 이용하여 방사선 방어를 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기간 중 치과에 내원한 임신부의 84.7%가 진료실 구성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다고 나타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구강관리방법은 환자의 교육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시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박¹⁷⁾의 연구에서 환자의 낮은 교육적 요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환자들 스스로 교육적 요구를 할 수 있는 환경에 항상 접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구강보건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치과의료기관 방문시 구강관리방법에 대해 문의해 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56.7%가 문의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¹⁸⁾의 연구에서도 치과환자의 62.8%가 구강건강에 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교육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¹⁷⁾의 연구에서는 환자의 56.5%가 구강보건교육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구강관리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4.0%만이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학력에 따른 구강관리방법 교육경험을 살펴본 결과, 대학원 이상 임신부의 47.1%가 구강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경험했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반면에 중학교 졸업 이하 임신부는 100.0%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구강관리방법에 대한 교육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조¹⁹⁾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한 경우가 20.6%로 낮게 나타났다. 환자들의 56.7%가 구강관리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환자가 24.0%에 그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강보건인력은 좀더 구강보건교육 업무에 비중을 두어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김²⁰⁾의 당뇨병 환자의 구강보건실태조사에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구강위생관리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또한 정기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12.0%만이 치과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정기구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¹⁴⁾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관리법의 효과에 대한 주관적 기대 순위에서 정기구강검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을 때 정기적인 치과방문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기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강검진시 정확한 결과의 통보와 개별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임신부의 구강상태의 인식을 높여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행동의 변화를 통해 건강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다¹⁹⁾. 이에 임신 후 구강관리방법에 대해 55.3%가 임신 전과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에 따른 구강관리방법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학원 이상 임신부의 88.2%가 구강관리방법에 변화가 있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대학교 졸업에서는 56.1%,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44.9%가 임신 후 구강관리방법에 변화

가 있다고 응답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구강관리 방법의 변화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직업에 따른 구강관리방법 변화에서는 전문직이 7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과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변화 내용으로는 구강 변화에 민감해졌다는 응답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신중에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할 때 치은염하 세균들이 증가하여 치은염이 나타나는데 이를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한다. 황체호르몬(progesterone)의 분비증가가 치은염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러 국소적 원인에 치은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치태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심해진다²¹⁾. 이 치태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Glickman²²⁾은 치과학 분야의 다른 어떠한 예방법이나 관리법보다는 잇솔질이 치은염의 가장 우수한 예방관리법이며, 사람이 5세에서 50세까지 잇솔을 이용한 구강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일생동안 치주조직의 파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신중 잇솔질 횟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39.8%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방법이 구강건강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칫솔 사용 빈도와 사용자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이를 신장시키는 데는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개개인의 임신부들에 대해서 정확한 칫솔질 방법과 시기 및 횟수 등을 평가하고 증진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인력이 직접 개별 실천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구강보건지식의 인지과정 중 구강진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조기치료 및 예방처치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잇솔질만으로 관리가 부족한 부위는 구강

상태별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치약은 칫솔과 더불어 널리 사용되며 사용빈도가 높은 구강위생용품으로 많은 종류의 치약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불소는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약제로 인정되고 있으며 시판 중인 대부분의 치약이 불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 등²³⁾의 연구에서 90% 이상의 응답자가 불소를 우식예방과 효과적인 물질이라고 답하여 불소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치약 선택에 있어서 대부분 불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의 일반치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10.7%만이 불소치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불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하나의 연구과제로 나타났다.

대중매체의 사회화 기능으로 오늘날 우리 생활 주변에 범람해 있는 각종 매스미디어는 넓은 의미의 교육작용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그 목적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을 수행해 주고 있다¹⁴⁾. 본 연구에서도 임신부의 50.7%가 매스컴 및 인터넷을 통하여 구강보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이나 체육시간 등을 통하여 구강보건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성인은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곧 스스로 관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²⁴⁾. 그러므로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폭넓고 정확한 구강보건지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구강진료기관을 통한 실천 가능한 교육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의 질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전국적인 규모와 전

체 임신부 대신 전라북도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산부인과에 국한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여 해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내용을 좀더 세분화하고, 조사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5. 결 론

임산부의 구강건강관리 행동실태 및 적극적인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구강진료실에서 임신기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구강보건교육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방향을 제시하고자 전라북도에 위치한 산부인과에 내원한 임신부 150명을 대상으로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구강보건관리 행동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임신기간 중 43.3%가 최근 3개월 동안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방문목적으로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주병 치료가 33.8%로 나타났다.
2. 치과 진료시 임신부의 84.7%가 진료실 구성원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렸으며, 임신중 12.0%가 정기구강검진을 받고 있었다.
3. 구강관리방법에 대하여 문의해 본 경험이 있는 임신부는 56.7%였고, 실제로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한 임신부는 24.0%로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임신 후 구강관리방법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55.3%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구강관리방법에 변화가 높게 나타났고, 직업에서는 전문직이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과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임신 후 구강관리방법 변화 내용으로는 구강변화에 민감해졌다는 응답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잇솔질 횟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39.8%로 나타났다.
6. 임신 후 치약선택의 변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선택한다가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선택한다는 응답은 10.7%로 낮게 나타났다.
7. 임신부의 구강건강관리방법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로 마스크 및 인터넷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1. 노홍태, 권선호, 산부인과 환자에 있어서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임신부와 종양환자를 중심으로. 대한산부회지 1986;29(1): 59-64
2.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외 11인. 임상예방치학. 3판. 서울:고문사;2000: 378
3. 김인숙, 오정숙, 이은숙 외 7인. 구강보건교육학. 서울:고문사;2002: 67
4. 이선미. 치과위생사의 전문 직업 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5. 김숙향. 치과위생사 임상실무. 서울:의치학사;1999: 50-53
6. 김연화. 유아 어머니의 구강보건인식도에 따른 유아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5;5(2) 147-157
7. 김연화. 유아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

- 동에 따른 유아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5;5(1) 15-27
8. 김수정.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이 자녀의 유치우식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5;4(2) 165-175
 9. 안용순, 김미정, 성남시 보건소 유아구강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구강건강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1;1(2) 201-209
 10. 노정, 신승철. 서울시 국민학교 아동의 구강보건교육방법에 따른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2;10(2) 201-226
 11. 황윤숙, 김영남 외 4인. 유아의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5;5(2) 297-309
 12. 김교웅, 남철현. 초중등학생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0;13(2) : 295-317
 13. 임신출산 40주, 서울:학원사;1989;61: 129
 14. 이향님. 구강진료기관 이용자의 구강보건 지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5. 윤보현 외 7인. 임신부의 치주질환 활성도와 조산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치주과학회지 2000;30(1) : 111-120
 16. 임신 · 태교 · 출산, 주부생활;1989: 73
 17. 박미영. 치과환자와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교육 인식도 비교.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8. 주온주. 전라북도 치과환자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9. 조미영. 지역사회 고등학생들의 구강보건 실태 및 행동에 관한 조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0. 김남희. 당뇨병 환자의 구강보건 실태 조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1. 김병옥, 김설악, 김영진 외 7인. 치주학. 서울:나래출판사;2003: 86
 22. Glickman, I. inical logy. W.B. Sanunders Co., 1968
 23. 이은숙, 김희천, 한만덕, 나수정, 권혜숙. 보건의료직종별 구강보건관리 인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9; 23(2) : 139-149
 24. 김종배, 최유진. 공중구강보건학. 개정판. 서울:고문사;1996: 256-263

Abstract

A Study on the Behavior Status for Oral Health of Pregnant Women

Chung-Soon Park, Ji-Youn Lee¹, Sun-Ju Kim², Kyung-Hee Lee³
and On-Ju Ju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angNeung Yeongdong College,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yuksung College,

³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heung College

Key words: Pregnant Women,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Educati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pregnant women's oral health care behaviors and the necessity of active oral care so as to use in the dental hygiene education at dental clinics as basic materials to inform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during pregnancy and instruct how to improve it. And to suggest a dental service direction for dental hygienists. 150 pregnant women who visited the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s located in the north part of Cholla province were surveyed with questionnaire on their oral care behaviors, from september to October in 2004.

The findings were as below:

1. 43.8% of the pregnant women have ever used the dental care institutes within the recent 3 months during pregnancy period. The purpose of the visits was mostly treatment of dental caries, accounting for 40.0%. Next came the treatment of periodontal diseases, accounting for 33.8%.
2. At dental care service, 84.7% of the pregnant women informed the clinic staff of their pregnancy. 12.0% of the pregnant women were having periodical oral examination.
3. 56.7% of the pregnant women have ever inquired about oral care methods. 24.0% of the pregnant women have ever taken any oral health education, of whom 47.1% had higher schooling

over graduate school,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4. 55.3% of the pregnant women made changes in their oral care practice after they got pregnant. Change of oral care practices was more obvious in those who had higher schooling background, of whom specialist women accounted 76.9%. Change of oral care practices after pregnanc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to the academic background and occupation.
5. Of the changes in oral care practice after pregnancy, 51.8% of the pregnant women answered they got sensitive to change in their oral status, and 39.8% increased the frequency of tooth brushing.
6. In selecting a tooth paste after they got pregnant, 58.0% of the women didn't give any special consideration to the kind of tooth paste, while 10.7% women as low selected such tooth pastes that contain fluoride.
7. Pregnant women's route for gathering oral care information was mostly mass media and Internet, which accounted for 50.7%.